

에이즈 발병 전 나타나는 증상

“피로감, 미열, 체중감소, 설사” 등

글_ 김의석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의 첫 증상하면 붉은 반점을 흔하게 떠올리게 된다. 사실 이것은 에이즈 전구 증상이 아니고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고 8~10년간의 무증상기를 거친 후에 인체의 면역기능이 바닥까지 망가졌을 때에 생기는 카포시 육종이라는 질병이다. HIV에 감염된 후에 면역기능이 파괴되면 본래 정상인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증이 생기고(이를 기회감염이라고 함) 암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HIV 감염인에게 기회감염 혹은 암 등이 발생한 상태를 에이즈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HIV에 감염된 후에 에이즈가 발병하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일부는 에이즈 발병 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에이즈 전구 증상)을 겪게 된다. 오늘은 HIV에 감염된 후 에이즈가 발병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전구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에이즈 전구 증상은 권태감, 피로감, 미열, 식은땀, 체중 감소, 설사 등이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비특이적인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만성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HIV 감염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에이즈 전구증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피로감은 가장 흔한 전구 증상으로 많은 감염인들이 건강할 때 해오던 만큼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드물지만 심한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발열도 흔한 증상으로 대개는 미열(38℃ 이하의 체온)이다.

평소 체중보다 10% 이상의 심한 체중감소와 함께 한달 이상 지속되는 발열 혹은 설사가 동반된 경우를 소모성 증후군(wasting syndrome)이라고 한다. HIV 감염인 중 어느 정도가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는지 아직 잘 모른다. 증상이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HIV 감염 자체에 의한 이상소견, 쉽게 진단할 수 없는 숨어있는 감염증, 감염인의 내분비 계통 이상 등이 모두 관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에이즈 발병 전에 피부병과 입병 먼저 발생

HIV 감염 후 신체의 방어 능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심각한 기회 감염증이 생기기 전에 피부병과 입병이 먼저 발생하게 된다. 평소 앓고 있었던 피부염, 손발톱 무좀, 사마귀 등이 악화되거나 입술, 성기, 항문 주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상-물집이 생겨서 터지거나 헐게 됨)이 자주 재발하게 된다. 그 밖에도 대상포진(증상-몸 한쪽 부위에 여러 개의 물집이 모여서 생겼다가 터지고 아픔, 그림 1)이나 구강칸디다증(입안에 하얀 아구창이 생겨서 아프고 음식 삼키기가 어려움, 그림 2), 구강 털백색판증(혀의 측면에 여러 개의 하얀 줄모양 병변이 생기지만 아픔은 없음, 그림 3), 구강궤양, 잇몸 염증 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시기가 지나서 면역 기능이 더 파괴되면 HIV 감염인에게 그 병이 생긴 것만으로도 에이즈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감염증, 암, 치매 등이 발생하게 된다. HIV 감염인에게 대상포진이나 구강 칸디다증 등이 발생하는 것은 에이즈로의 진행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예고하는 전조라고 할 수 있다.

HIV 감염 후 시간이 경과하면 혈액검사가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병원에서 흔하게 시행하는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감소(특히 림프구 감소), 빈혈, 혈소판 감소를 관찰할 수 있다.

전구 증상 나타 나면 에이즈치료 시작해야

에이즈 전구 증상들이 발생하였을 때에 환자나 의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과연 얼마나 빨리 에이즈로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에이즈로의 진행 속도는 감염된 바이러스의 양, 감염인의 나이나 면역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감염증에 대해 미리 예방적으로 약제를 투여하거나 에이즈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들을 투여하면 에이즈로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에이즈 전구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많다. 에이즈 전구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HIV 외에도 다른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이 혹시 숨어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해봐야 한다. 이중 치료가 가능한 병이 많기 때문이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HIV 감염인에게 이전에 없었던 피로감,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설사 등이 생겨서 지속되거나 피부병 혹은 입병 등이 발생하면 에이즈 전구 증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야 한다.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미루어왔던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에이즈 전구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를 찾아 가서 상담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림 1_ 대상포진



그림 2_ 구강칸디다증



그림 3_ 구강 털백색판증